

# 한 획 A Brushstroke 2011.7.6~8.21

## 1. 전시개요

제 목 : 한 획 (一劃, A Brushstroke)

일 시 : 2011. 7. 6(수) - 8. 21(일), 47일간

(오프닝 2011. 7. 6 (금) 17:00)

참여작가: 안토니 고펠리, 김태호(서울여대), 김호득, 류사오동, 서용선, 리처드 세라,  
유현경, 윤향란, 이우환, 정상화, 정현, 아니쉬카푸어, 주세페 페노네,  
샘 프란시스, 시몬 한타이

장 소 : 학교재 갤러리

출 품 작 : 회화 및 드로잉 38점

## 2. 전시의의

예술가들은 표현방식과 그 결과물은 각기 다르지만, 무수히 많은 연구와 수행을 바탕으로 화면 안에서 자신의 언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드로잉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도 있지만 작품을 구상하고 연습하며, 작업을 위한 작가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삶에 대한 통찰과 올바른 것, 알맞은 것, 목표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진 획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예술세계, 작품에 대한 마음가짐과 노력 등이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난다.

한 시대의 미술가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고자 하는 국내외 작가 중에서 15인의 작품을 모아 '한 획(一劃, A Brushstroke)'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마련했다.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반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마음가짐을 그들의 한 획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 3. 전시주제

####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는 한 획

이번 전시제목 ‘한 획’은 청초(靑初)의 화가이자 화론가인 석도(石濤)의 《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尚畫語錄)》 중 〈일화론(一畵論)〉에서 가져왔다. 석도는 이 책에서 내면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고, 팔이 움직여 붓을 부리고, 붓이 먹을 부려 만물의 형상을 그린다고 말한다. 특히 〈일화론〉의 첫 구절인 ‘일획론(一劃論)’에서는 한 획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태곳적엔 법이 없었다.  
순박이 깨지지 않았다.  
순박이 깨지자 법이 생겼다.

법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 획에서 나왔다.  
한 획이란 존재의 샘이요, 모습의 뿌리다.  
그것은 신에게는 드러내지만, 사람에게에는 감춘다.  
세상 사람은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 획의 법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무릇, 한 획의 법을 세운 사람은  
무법(無法)으로써 유법(有法)을 만들고,  
그 법으로써 모든 법을 꿰뚫을 것이다.

- 석도, 일획론

석도는 한 획은 모든 그림의 시작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작가가 작업에 임하면서 획 하나하나의 의미를 올바르게 구현할 때, 그것들이 모여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은 보다 독창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갈망한다. 그 안에는 작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담겨야 하고, 시대와 교감하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 또한 어떤 방향에서든 보다 진일 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한 획에는 회화에 대한 태도, 즉 변하지 않는 작가의 정신이 담겨야 한다.

#### 4. 전사내용

##### 수행의 과정, 한 획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의 작가 15명의 드로잉과 회화작품 38점**을 만난다. 이들 작품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을 위한 본이기도 하며, 본인의 기술을 시험하는 연습장이다. 또 그날그날의 사색을 기록한 감성의 메모이기도 하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씌에 있어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의 경지가 있는데,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 진정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하였다. 손끝의 잔재주가 아니라 정신의 품격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야 그 속에 화가의 정신이 울퉁이 깃든다는 것이다. 추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옛 화인들에게 **그림은 마음을 같고 닦는 수련이며, 지식과 생명에 대한 통찰**이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15인을 포함한 많은 작가들은 자신만의 언어와 생각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 획을 그리면서 **무수히 많은 실험과 연습**을 한다. 서용선에게 한 획이란 몸속의 기운과 이미지가 감도는 한 호흡이다. 이미지를 구상하면서 내리긋는 순간 자신의 습관이 드러나므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일관성 있는 흐름을 위해 드로잉을 하면서 형태와 기법에 대한 실험을 거듭한다.

한편 유현정은 한 획이란 긴장이 되고 용기가 필요한 새로움에 대한 시도라 말한다. 그의 자화상 〈모습〉(2009)과 〈일반인 남성 모델 K\_서울 마포구 합정동〉(2010)에는 다양한 그리기의 실험이 보인다. 그의 드로잉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 무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험과 도전의 산물이다.

##### 삶의 궤적, 한 획

무수한 연습과 실험으로 완성한 **한 획에는 삶의 많은 자취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드로잉과 회화에는 **작업을 하면서, 혹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스크랩되어있다**.

드로잉을 생각의 방법이라 믿는 고희는 조각을 하면서 항상 드로잉을 한다. 펜과 잉크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과정과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무의식의 정신상태에서 생각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드로잉은 감정의 로드맵으로 조각과 드로잉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류샤오동이 〈인왕산〉(2008)을 작업하며 사용한 팔레트에는 작업 당시에 느낀 무의식과 감정의 표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색상과 붓놀림의 흔적만 남은 이 팔레트는 보는 이들에게 실제로 만들어진 작업은 어떠하며, 그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보낸 시간과 감정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준다.

윤향란의 드로잉은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압박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셋김의 행위이다. 그의 한 획은 사람의 애환을 놀이로 승화시킨 자신과의 교류로, 정서적 해방에 이르기 위한 움직임의 흔적이며 삶의 궤적이 담긴 일기이다.

정현은 철 드로잉에 대해, 작업을 하면서 혹은 작업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감성의 메모이며 정서적 심리적 상황과 감정을 잡기 위한 일필휘지(一筆揮之)의 노력이라 말한다. 날것 그대로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생명력, 작가의 감정과 방치된 사물, 시간이 남긴 흔적은 작가의 작업원천으로 그의 조각에 살아 숨 쉰다.

## 생의 기운, 한 획

한 점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자신의 목표와 작업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다양한 기법들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나간다. 작품이 작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작품을 이루는 획 하나하나에는 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쏟은 그동안의 노력과 연구 그리고 작가의 삶이 함께 담겨 더욱 강렬한 에너지를 전한다.

김태호는 온전히 알맞게 있는 상태가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회화는 작가의 혼이라고 여기는 그는, 가장 적절하게 있는 모습과 가장 알맞은 움직임이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믿는다. 혼이란 생각과 감정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한 획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함축하여 드러낸 표현이다.

김호득은 자신의 회화가 기운생동(氣韻生動)의 흐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자연의 기운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서 나아가 살아있음, 생명감을 표현하기를 소망한다. 김호득의 한 번의 붓놀림에는 날것의 생생함이 담겨있다. 동양화에서 말하는 필(筆)의 힘과 에너지, 기운이 펄떡거리는 생명감으로 다가온다.

김태호와 김호득이 감정과 기운을 필획에 함축한다면, 정상화는 반복적인 제작과정이 주는 아우라를 중요시한다. 어떤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작가는 획 하나하나를 긋는 행위를 통해 현대인의 반복적인 삶과 그 너머의 근원적, 철학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무엇을 그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그의 화면은 숨 쉬는 유기적인 표면으로 다가온다.

이우환은 매가 사냥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응축하였다가 단숨에 긋는 한 획이 가지는 존재감을 생각한다. 점과 점 사이, 나아가 사물과 사물, 공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흐름과 각각의 근본적인 존재감을 부각하여 긴장감과 공명, 그 사이를 관조하는 정신의 흐름을 표현한다.

주세페 페노네는 유기적인 자연물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공하고 변형하여 강한 생명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예술적인 변화 과정 위해 작가가 표현하는 한 획은 원래의 의미와 페노네에 의해 은유적으로 형상화된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으며 화학적, 물리적으로 쉽 없이 변하는 생명 에너지를 드러낸다.

## 한 번의 손짓에 담긴 작가정신, 한 획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문하고 실험한다. 이전보다 새롭고 신선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와 교감하는 정신을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또한 어떤 방향에서든 보다 진일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한 획의 무게감을 아는 작가의 획 하나하나에는 무수한 연습으로 삶의 자취를 담아낸 작가의 신념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이 담겨있다. 한 획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화면 안에 되살리려는 결과이다. 석도가 말하는 스스로 세운 법, 부단한 노력으로 깨달은 한 획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 회화의 정신이 담겨있다.

## 5. 작가소개

### 안토니 고펠리 / Antony Gormley

안토니 고펠리는 1950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1968년부터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Cambridge University)에서 고고학과 인류학, 미술사를 공부했고, 졸업 후 불교와 명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와 스리랑카 등지를 3년 동안 여행하며 동양의 정신성을 탐구했다. 이후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골드스미스 대학(Goldsmiths College)과 슬레이드 미술학교(Slade School of Art)에서 공부했다. 1994년 영국의 터너상(Turner Prize) 수상을 비롯해 다수의 미술상을 받았으며, 특히 공공미술의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인체를 개인의 기억이 보관되고 변형되는 장소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는, “모든 감정들이 직접 새겨지는 곳으로, 당신이 화가 날 때, 또는 흥분하거나 행복할 때, 우울할 때 모두 신기하게도 몸은 그 감정들을 그대로 빨아들여 느낄 수 있다” 고 말한다. 인체를 정해진 장소에 전시하여 보는 이에게 간접적인 생각의 변화를 제시하거나, 필드 프로젝트(Field project)와 같이 500명과 합작하여 조그마한 인체를 자화상으로 만들어 보이는 등, 30년이 넘도록 몸에 대한 열정을 쉼 새 없이 드러내고 있다.

### 김태호 / KIM Taeho

김태호는 1953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다. 197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1985년 파리 제8대학 조형미술학부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서울여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금호미술관 초대 개인전을 비롯해 9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모호한 형태와 은은하고 예민한 색채의 표면이 특징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김태호는 이성적 논리보다 직감을 더 중요시하는 작가다. 작가에게 미술은 정서의 표현으로, 일루전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들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혼이란 생각과 감정이 함축되어 나타난 것이다. 가장 자연스럽고 알맞은 순간이, 그 정서가 가장 강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순간이다.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알맞은 것인지 자문하고 또 그것을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 김태호 작업의 요지다.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함축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 김호득 / KIM Hodeuk

김호득은 1950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호미술관 전시를 비롯해 총 100여 회의 개인 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실험적이고 과감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에게 작품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그는 수묵의 농담 변화 대신 획의 표정, 분위기와 공간감을 통해 미묘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즐긴다. 그의 작품은 서양화의 드로잉처럼 보이지만, 내리 그은 획 하나하나에 동양의 정신성을 담고자 노력한다. 아무렇게나 휘두른 듯 하지만 기운이 넘친다. 이러한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기운생동(氣韻生動)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준다.

### 류 샤오둥 / LIU Xiaodong

류 샤오둥은 1963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태어났다. 베이징 중앙미술학원(北京中央美術學園)을 졸업했고, 1995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1998년부터 1년간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파인아트 아카데미(Academy of Fine Arts,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베이징에서 작업하고 있다.

중국 현대 회화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류 샤오둥은 서정적인 소재의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작가는, 배경을 고르고 모델을 그 공간 안에 세워 그려 그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현실감을 만드는 작가의 테크닉과 상상력은, 사람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간의 교류를 재조명함하고,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친근함과 부드러움, 애정, 그리고 그 공간에 서 있는 모델의 감정과 생동감이 작품에 나타난다.

## 서용선 / SUH Yongsun

서용선은 195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중앙미술대전 특선에 입상하여 화단에 등장한 이후 3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1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Hamburg Pentiment) 초대교수 겸 작가로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서용선의 작품 속에는 문화와 정서를 뛰어넘어 사람이 산다면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표정과 느낌, 인간본질에 대한 성찰과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역사, 또 그것들이 만들어갈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인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다.

1980년대 초반 일련의 소나무 회화 연작들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역사화와 도시인 연작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 소재를 통해 회화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회화공간을 재구성해온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들 속에서 역사의 격랑과 그 속에 휩싸인 인간 존재의 갈등을 밀도 있는 솜씨로 그려낸다. 반항하듯 던져놓듯 색을 쓴다는 그는, 강렬한 색채와 필선을 통하여 작품에 충격성을 더했다. 역사의 시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도시의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제도, 관습, 국경, 도시, 생산, 소비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시대의 풍경으로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유의 시각으로 공간의 현실감을 그림 안에서 배로 만드는 그는 적나라하지만 꾸밈없는 상상력을 캔버스 위에 그려낸다.

## 리처드 세라 / Richard Serra

리처드 세라는 193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1957년 US버클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1964년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뉴욕과 노바스코샤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고무, 네온관, 녹인 납 등의 재료로 추상작업을 했으며, 1970년대부터 철을 이용한 작업을 시작했다. 세라는 학창시절 철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경험이 철 작업을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조각이 세워지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력과 균형을 중요시한다. 조각물이 설치된 공간과 조각품,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과의 관계와 더불어 철이라는 재료의 본질과 물질 자체에 집중한다. 철이 가진 강하고 무겁고 거친 속성을 유연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철에 대한 통념을 해체하고 해방시킨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라의 압도적으로 큰 스케일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거대한 면이 가져다 주는 물리적인 힘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다. 그의 작업은 불안과 안정의 감정을 동시에 전한다.

### 유현경 / You Hyeonkyeong

유현경은 1985년 청주 생으로 어린 시절을 충주에서 보냈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사람과 공간을 소재로 작업하고 그들이 어떤 관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면의 서사를 전개한다. 2009년 7월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인사아트센터에서 첫 번째 개인전 '욕망의 소나타' 를 열었고, 같은 해 10월 하동철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우석홀에서 개인전 '화가와 모델' 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갤러리 LV5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2011년 7월에는 제 2회 송암문화재단 OCI 미술관 신진작가지원으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올 가을에는 쉐로스 플뤼쇼브(SCHLOSS PLÜSCHOW)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독일에서 작업할 예정이다.

유현경은 비교적 묵직하고 진지한 고민 속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감성을 전달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행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잘 참아두었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관찰했던 많은 것들을 꺼낼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마구 쏟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작가의 경험과 기억, 그 너머의 무의식은 화면 위로 화려한 색채와 즉흥적 무질서가 살아 있는 관능적인 붓질을 남기고 사람과 사람, 시선과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와 그로 인한 권력구조들은 성적인 기호와 이미지가 뒤덮인 도상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욕망을 해소하고자 토해낸 그러한 기호들은 불쾌함과 음란함을 일으키기보다는 강렬한 감각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관객에게 감각 그대로를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 윤향란 / YOON Hyanglan

윤향란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파리국립미술학교(Pari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파리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총 1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25년 이상을 이방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어머니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크게 배추 형태의 드로잉-콜라주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 드로잉, 근작으로 〈서류 위의 붓놀이〉 시리즈가 있다. 작가는 장소와 공간,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그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루기 편한 파스텔과 종이라는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하며 자신이 지닌 생의 에너지를 유연하게 발산한다.

### 이우환 / LEE UFan

이우환은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독일, 1961년 니혼대학(日本大學)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모노하(物派)의 이론을 주도했고, 1973부터 1991년까지 도쿄의 타마 미술대학(多摩美術大學)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파리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베니스 비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여하였고,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한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모노하는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나무, 돌, 철판, 종이 등의 소재를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이로써 사물에 근본적인 존재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 공간,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간단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이우환의 회화에서 붓으로 찍은 점 하나하나, 그은 선 한 줄 한 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서로에게 반응하고, 붓이 닿지 않은 공간까지 모두 하나로 집중시키는 시각적 힘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상징과 일루전의 미학을 거부하며 보는 이들을 시각 너머의 정신적 세계로 이끈다.

### 정상화 / CHUNG Sanghwa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평가 받는 정상화는 1932년 경북 영덕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1967년 도블 후 일본과 프랑스, 한국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이 형성하는 무수한 그리드로 된 정상화 작품의 단색 화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다. 평면에 깊이를 심는 독창적인 작업인 ‘뜯어내기’와 ‘메우기’로 만들어지는 그의 작품은, 먼저 약 3-4mm 두께로 고령도와 분도를 섞은 잉크 물감을 캔버스에 초벌로 칠한다. 그 후 완전하게 마르면 캔버스를 가로세로로 접어가면서 바둑판무늬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에 의해 생긴 수많은 작은 네모들 중 선택한 부분의 물감을 하나씩 떼어낸다. 그 자리에 다시 아크릴 물감을 몇 겹으로 채워 넣어 스며들거나 혹은 문치게 하는 방식으로,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나 분출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계산과 고도의 수행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 외에도 투명한 종이를 잘라 붙이는 작업이나 연필 프로타주 작품 등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뜯어내고 채우고 긁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꼭 차 있지만 동시에 비어 있는 동양의 여백을 그의 작업언어로 표현한다.

그는 “나의 작업은 어떤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한다. 일관성 있게 몇 겹씩 쌓아야만 완성되는 반복적인 제작과정을 중요시한다. 작업의 행위 자체가 작품의 의미다. 정상화의 작업은 현대인의 반복적인 삶과 그 너머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나가고자 하는 노력이며, 그의 화면은 무기적인 평면이 아니라 숨쉬는 자료, 유기적인 표면이다.

## 정현 / CHUNG Hyun

정현은 1956년 인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고등미술 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에서 수학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중국 금일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현이 선택하는 재료는 침목, 석탄,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잡석 등 대부분 버려진, 용도 폐기된, 이른바 산업쓰레기들이다. 그것들은 한때 쓰임새가 있었으나 이제 용도가 다한 것들이다. 그렇게 버려진 질료들에서 작가는 인간의 인고의 역사와 그 감동을 발견했다. 정현은 이를 작품으로 변형시켜 그 사물들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파악하여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내놓는다.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에서 집중적으로 선보인 침목(枕) 작품은 그의 조각하는 태도 혹은 조각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극명히 보여준 것으로, 침목으로 구현한 인간상은 인간과 산업사회, 인간과 근대문명의 치열한 대결과 화해의 기념비적 형상이다. 그는 침목을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재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 상태로 놓아두었다. 재료와의 만남이 단순한 사용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순치되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작업에 임한다고 말한다. 이는 발견이 곧 창작이 될 수 있는 내력을 말해준 것이다.

## 아니쉬 카푸어 / Anish Kapoor

아니쉬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1973년 영국으로 이주했다. 영국 혼시 미술대학(Hornsey College of Art)에서 수학하고 첼시 미술대학(Chelsea School of Art and Design)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리처드 디킨(Richard Deacon), 빌 우드로(Bill Woodrow) 등과 함께 '젊은 영국 조각가(The Young British Sculptors)' 로 주목 받았다.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고, 1991년 영국의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했다. 세계 각지에서 80여 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공공미술 분야에서도 명성이 높다.

아니쉬 카푸어의 작업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변화하는 공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서구와 아시아 두 문화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문화의 충돌과 만남을 동시에 경험한 작가는, 문명과의 만남, 사람과 물질과의 만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남의 본질을 해석하는 독특한 작품을 선보인다.

카푸어는 동양적인 감수성을 토대로 조각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실험정신과 사물에 대한 다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는 정형과 비정형, 채움(Solid)과 비움(Void), 2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고 있다. 면과 입체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의 작품은 이들의 대비를 통하여 조각의 조형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한 유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만지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게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표현되어 있는 조형의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 주세페 페노네 / Giuseppe Penone

주세페 페노네는 1947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1970년 토리노 미술아카데미(Accademia di Belle Arti, Torino)에 입학했으나, 아카데미한 미술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여 시골의 제재소에서 미술작업을 시작했다.

1960~70년대 전후 이탈리아의 미술에서 흙, 나무조각, 철 조각, 시멘트, 누더기 등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물질의 본성을 탐구하고, 최대한 손질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예술로 옮기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삶과 예술, 자연과 문명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사색, 성찰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을 통해 사회 권위나 위계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위미술운동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가난한 미술)의 중심인물인 그는 나무와 숲을 매개로 하여 몸과 그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페노네는 돌과 송진, 가죽, 나무 등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을 자극하고 그 둘의 의존성을 지적한다. 유기적인 자연물은 작가에 의해 가공되고 변형되어 다양한 삶의 형태와 조직, 서로 다른 가능성과 체계를 연결하는 대상으로서 탁월한 은유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의 작품은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으며 화학적, 물리적으로 쉽 없이 변하는 사물이다. 또한 자연물이라는 원래의 의미와 예술가에 의해 은유적으로 형상화된 새로운 의미 사이를 넘나들며 긍정적 에너지로서 살아 있고 성장한다. 작가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인위적인(예술적인) 변화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무수한 가능성과 변화로 인한 강한 생명감을 이야기한다.

## 샘 프란시스 / Sam Francis

샘 프란시스(1923~1994)는 19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US버클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동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의학을 전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공군으로 입대한 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상, 3년간 투병생활을 치유하면서 미술을 시작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 이성의 이기가 가져온 결과에 회의를 느낀 프란시스는 인간 본연의 감수성과 창조력을 추구하는 작업에 임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 작가이기도 한 그는 동시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Mark Rothko), 클리퍼드 스틸(Clyfford Still) 등과 일본 전통미술, 프랑스 앙포르멜 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란시스는 에너지를 그대로 캔버스 위에 발산시켜 자발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회화의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특히 일본미술의 진한 색감과 얽은 물감, 그리고 '비움과 충만'을 상징하는 여백에 매료되어 이를 작품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화면의 구성에 극적인 긴장감을 표현했다. 199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드라마틱한 제스처와 견고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프랜시스의 추상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한 과감함을 보여준다.

## 시몬 한타이 / Simon HANTAI

헝가리 태생의 프랑스 화가인 시몬 한타이(1922~2008)는 1922년 비아에서 태어났다. 8살 때 급성 전염병인 디프테리아에 걸려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이 경험은 그가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폴딩(Folding)’ 페인팅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42년 부다페스트 순수미술대학(Budapest School of Fine Art)을 입학한 그는 졸업 후 1948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 초현실주의(Surrealism) 화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플리아주(Pliage), 콜라주(Collage)와 프로타주(Frottage) 등 다양한 기법을 실험한 그는 프랑스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비롯하여 1950년대 중반 폴록(Jackson Pollock)과 마티유(Georges Mathieu)의 작업을 대하면서 ‘방법으로서의 플리아주’로 전향,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시몬 한타이의 독창적인 작업방식인 플리아주는 폴딩이라고도 불리는데, 캔버스를 접거나 꼬아 나뭇잎이나 크리스탈 형태의 패턴을 만든 후 캔버스를 펴서 그 위에 색을 입히는 방식이다. 채색한 부분과 채색하지 않은 부분의 대조와 선사시대 인간들이 동굴의 벽에 찍어놓은 듯한 기호 같은 형태로 구성한 그의 작업은 시스템화된 초현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통제의 불가능함, 예기치 않은 근원적인 물질성에 의한 순수한 기쁨을 보여준다.